

여수시 미래 이끌 '미래발전위원회' 뜬다

정책기획·교육혁신·의료혁신 3개 위원회로 꾸려 정책 자문 전문가위원 1월 3일까지 공모...새로운 싱크탱크 역할 기대

민선 7기 여수시가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발전 위원회 가동을 본격화 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의 핵심 공약인 '미래발전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미래 도시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전문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새로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수시는 이번 전문 자문기관 출범을 통해 민선 7기 여수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끌고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분야별로 운영, 도시성장을 물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발전위원회 등 개별 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을 내년 1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별 위원회는 학계, 예술계, 교육계, 의료계 등 전문가 입장에서 정책제안과 자문,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기구로 꾸러지며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 의료혁신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독립적인 자문 역할을 한다.

3개 자문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정책기획위원장은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다.

독립된 3개의 개별위가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발전위원회는 개별 위에서는 의된 내용들을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기획위 담당분야로는 일자리·인구·자치분권·복지·여성도시건설교통, 안전·환경·미래산업·지역경제·문화체육관광·해

양수산·농림축산 등 10개 분야다.

정책기획위에서는 시 주요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평가, 장·단기 발전계획을 논의한다.

또 분야별 정책과 현안과제 연구는 물론 새로운 정책개발과 행정 개선 분야도 주력한다.

시는 수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보육·교육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과 주요 정책, 보육·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육시설 육성 등 지역 교육과 보육 분야에 집중한다.

보육·교육계 운영자와 실무경험자, 학부모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모집 대상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지역 보건과 의료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주요 시정 분야 자문 활동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

보건·의료 시설 관리·운영자와 종사자, 실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응모자격은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사 취득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기관·단체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다.

개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원할 경우 기간 내 신청서, 재직(경력)증명서, 최종학위증(자격증) 사본 등을 시 기획예산과(061-659-3431)로 제출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미래발전위원회 가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역량·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 인재들의 정책 제안이 가능해져 더욱 수준 높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꾸려질 미래발전위원회가 여수의 싱크탱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GS칼텍스, 여성들 위한 리더십 포럼 출범

여수국가산단 내 유일 정유사인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가 여성들을 위한 리더십 포럼을 출범했다. 지역 여성들의 리더십 개발과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다.

GS칼텍스는 지난 20일 여수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리더십 포럼, 한여울'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포럼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여성 CEO의 경영 사례 발표와 리더십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

전남 여성 포럼에는 김명신(주)쿠키아 대표와 김미선 아라움 대표 등 전남지역 여성 CEO가 참여했다. 또 조은영 조우코 크리에이션 대표와 김인숙 서울여대 특임 교수, 신유형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등 국내 리더십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첫 번째로 나선 40대 후반 늦각이 창업가인 김명신 대표가 지역 꿈을 원료로 한 '뚜부과자'의 성공담을 발표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 대기업 등 CEO·임원 전문 리더 코치로 이틀남 조은영 조우코크리에이션 대표는 '시대와 함께하는 리더' 주제로 리더들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강을 제공했다.

이번 '리더십 포럼, 한여울'은 앞서 전남지역 중소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활동 중인 GS칼텍스 스마트워크지원단이 지역 경영 분석과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기획했다.

스마트워크지원단은 2016년부터 3년간 총 39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 CEO와 현장 책임자들이 여성임에도 전문 리더십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장의 상황에 이번 포럼을 착안했다.

한편 GS칼텍스는 매년 2회 정기포럼 개최는 물론 지역 여성 리더와 국내 리더십 전문가들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체계적인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

대중교통 활성화 등 좋은 평가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받아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도시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016~2017년 같은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올랐던 여수시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5개 도시를 인구수 기준 4개 그룹으로 나뉘 실시했다.

지자체의 지속가능 교통체계 개선노력과 성과를 환경·사회·경제 등 12개 항목, 31개 지표로 평가했다.

여수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과 주차수요관리, 교통안전개선, 교통약자·보행자·자전거 관련 정책추진, 시가지교통체계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했던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시상식에서 여수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시민들이 뽑은 2018년 최고 시책 '여수박람회법 개정'

'시정 10대 성과' 설문조사
2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3위 폭염 안전대책 강화

여수시민들은 2018년 최고 시책으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1위로 뽑았다.

여수시는 시민 의견수렴 창구인 시민소통광장 앱 등을 통해 지난 3일부터 15일간 시민과 공무원 1946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여수를 빛낸 시정 10대 성과' 설

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1위는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박람회법 개정이 차지했다.

2위는 전남수영장·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체육시설 확충, 3위는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비 안전대책 강화, 4위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CCTV 확대 설치였다.

이어 여수·순천·광양시의 광역 시내버스 개통(5위), 지방 관광정책 롤모델,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 등극(6위), 경도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국비지

원 근거 마련(7위)이 뒤를 이었다.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수시 민 채용 가점제는 8위, 초등학교 100원 버스 시행은 9위, 박람회장 정문·돌산대교 입구 회전교차로 개선·설치는 10위에 올랐다.

중앙시장 청년몰 '뽕따라볼' 개장과 청년지원센터 개소, 여수산단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국비 30억 원 확보도 순위에 들지는 않았지만 중요 시책으로 꼽혔다.

또 생활 체육시설 확충, 폭염 속 살수차

가동,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333곳 운영, 취약지역 65곳에 CCTV 186대 설치 등 정주 여건 개선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박람회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장 내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국립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된 점이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 1월부터 여성공무원도 숙직 '주목'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여성공무원 숙직을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

여수시는 그동안 남성공무원들이 전담했던 숙직을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여수시 당직근무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7일자로 발령했다.

이에따라 여수시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야간 보안점검, 악성민원 응대 등 위험요소가 밀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요원으로 2명씩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일산부나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수시가 여성 공무원들 숙직 근무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남성 공무원의 숙직 부담을 줄이는 등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

다.

실제로 여수시 공무원은 1723명인데 여성이 771명으로 44%를 차지해 남성 공무원으로만 숙직 근무를 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당직 근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했으며 552명 가운데 64%가 찬성해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여수시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된다.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았으나 여성도 투입되면서 숙직 주기도 1.5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